

전국 / 전남광주

저수지·방조제 무너지면?…중대 시민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 총력



박영래 기자

2026.04.15 오전 09:21

🔗 💬 가

농어촌공사 전남본부 "재난 관리 사각지대 원천 차단"



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저수지와 방조제를 대상으로 '중대시민재해 예방 사전 위험성 평가'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(전남본부 제공, 재배포 및 DB 금지) © 뉴스1



(광주=뉴스1) 박영래 기자 =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지역본부가 저수지와 방조제를 대상으로 '중대시민 재해 예방 사전 위험성 평가'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15일 전남본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와 재해 발생 시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전남본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2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으며, 향후 점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.

올해 점검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고위험군 시설을 중심으로 시행된다. 주요 대상은 △총저수량 30만 m^3 이상 △비상대처계획(EAP)상 대피 예상 인구 200명 이상 △2025년 4분기 정기 점검 결과 C등급 이하를 받은 시설물 등이다.

전남본부는 기습 폭우 등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우기 전 모든 평가를 마무리할 방침이다. 평가를 통해 도출된 지적 사항은 울

해 3분기 이내에 보수·보강 조치를 완료해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.

접근할 수 없는 사

공사 정보보안지침 제61조에 따라
웹하드, 문서편집, 게임, 음란, 도
메신저 등 접속이 불

공사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을 최
우선 배정하는 한편, 시설별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
얼을 현행화해 재난 관리의 사각지대를 원천 차단
해 나갈 예정이다.

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"기상이변이 일상화된
만큼 선제적인 위험성 평가는 지역민의 안전을 위
한 필수 과제"라며 "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
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중대시민재해 없는 안
전한 전남을 만드는 데 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
겠다"고 말했다.

yr2003@news1.kr

관련 키워드

농어촌공사

중대시민재해

저수지



박영래 기자 >